



'적벽 낙화놀이' 재현 11일 화순군 화순읍의 화순전 꽃강길 일대에서 화순의 전통문화였던 '적벽 낙화놀이'가 재현되고 있다. 적벽 낙화놀이는 조선시대 정월대보름, 4월 초파일 등에 맞춰 적벽에서 불을 붙인 짚단을 떨어뜨리며 주민들의 안녕을 빌었던 세시풍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올 수능 재학생 결시율 12% 웃돌 듯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재학생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험영역에서 미적분보다는 확률과통계,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 결시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이른바 '문과' 학생들의 결시율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3 결시율이 지난해 12.0%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에서 재학생 결시율이 23.4%를 기록해 지난해(22.2%) 수준을 넘어선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모평에서도 재학생 결시율이 18.4%로 지난해(18.0%)보다 높았다. 특히 9월 모의평가는 킬러문항 배제가 적용된 중요한 시험임에도 재학생 결시율이 높아진 이래적 양상을 나타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이에 비해 N수생 결시율은 지난해(11.7%)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모의평가가 N수생 결시율은 13.4%로

지난해(14.9%)보다 낮았고, 6월 모의평가 역시 14.5%로 지난해(15.2%)보다 낮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3학년도 수능 사탐 결시율은 15.0%, 과탐 결시율은 8.4%로 사탐이 더 높다. 국어영역은 화법과작문에서 13.0%, 언어와매체에서 9.2%의 수험생이 결시했고, 수험영역의 경우 확률과통계에서 14.0%, 미적분에서 7.3%의 응시자가 결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3 재학생이 재수생보다, 문과 수험생이 이과 수험생보다 결시하는 비율이 높은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 증가, 9월 모평에 응시하지 않은 반수생 유입, 킬러문항 배제 등 변수가 많아 수능 점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복합적 변수가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해법 안보인다

시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측 포기 통보...새 수탁자 찾기도 어려워 시, 운영비 증액·직영 난색...요양병원 기능 민간 영역 이전 목소리

광주시립요양병원들이 또 다시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운영 중단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약화하고 있는 공공요양병원의 영역을 장기적으로는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빙고음의료재단이 지난 10일 시에 조건부 운영 포기 통보를 했다. 재단 측은 광주시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지원금 13억 8000만원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적자와 운영 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한 재단 측은 운영 손실을 호소하며 호봉제 폐지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시 직영 등을 요구하며 84일간 파업했다. 광주시는 신설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재단은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도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재단측의 운영비 요구를 마냥 반영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로운 위수탁 기관 선정도 난항이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립 제2요양

병원의 경우 올해 세 차례 새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전남대병원 역시 5년간 28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시의 보전 없이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차 공고에서 단 한 곳의 법인만 신청해 적격 심사까지 통과했으나 해당 법인이 지난 7월 운영 의사를 철회한 이후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광주시의 직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립 제1요양병원 149명, 시립정신병원 168명, 시립 제2요양병원에는 22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고령화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요양병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기능을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 횡단보도 걷기 편해진다

광주 11곳 등 요양기관 인근 보행신호 체계 변경 차량신호 끝나고 1~2초 후 보행신호...시간도 늘려

고령자들의 걸음걸이를 반영해 광주지역 11곳 교차로의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되는 등 신호체계가 바뀌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고령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전국에서 고령 방문자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 인근에 설치된 152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광주에서는 총 11곳의 교차로가 대상지로 뽑혔다. 광주시 동구 동구문화센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구 (구)상무대입구, 북구 요한병원·고려고·두암김스쿨·광주은행문화회점·무등도서관·운암한국병원, 광산구 운남삼성아파트정문·수원소풍물 등지에 있는 교차로가 대상이다. 대상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가 끝난 뒤 1~2초 뒤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도록 하는 '보행 전시간 기법'이 적용됐다. 보행 신호 시간 또한 연장됐다.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초당 1m 속도로 걷는다고 보고 보행 신호 시간을 정하지만, 개선 대상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속도 기준을 초당 0.7m로 낮췄다. 예를 들어 10m 길이의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 시간이 기존 17초(보행 진입시간 7초+보행 속도 기준 10초)에서 21초(보행 진입시간 7초+보행 속도 기준 14초)로 늘게 되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별도로 신호체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다. 2018년에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487명 중 56.6%(842명)가 고령자였으며, 2019년 57.1%(1302명 중 743명), 2020년 57.5%(1093명 중 628명), 2021년 59.0%(1018명 중 601명), 2022년 59.8%(933명 중 558명)으로 비율이 늘었다. 광주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2018년 60.8%(46명 중 28명), 2019년 61.7%(34명 중 21명), 2020년 60.0%(20명 중 12명), 2021년 71.4%(21명 중 15명), 2022년 61.5%(26명 중 16명)로 집계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 1·2호기 환경평가 보완 촉구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025년과 2026년 폐로를 앞둔 1·2호기의 연장을 위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아있는 법적절차의 조속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은 이날 5일 '초안 내용이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사유로 한수원에 2차 보완요청을 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함평군도 지난달 19일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했다. 한수원은 '초안은 고시에 의거해 작성됐으며 시행령에 따라 주민공람을 해주길 바란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함평군은 추가 보완요청을 고려하고 있다. 고창군도 지난달 17일 자체 전문가 용역을 거쳐 7가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적용,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 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창군은 18일 한수원 측의 답변을 받았으나 지난 8일 고창군 한빛원전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민간단체 등 전문가 용역을 통해 2차 보완 요청을 했다. 부안군도 지난달 19일 피폭선량을 면담위로 평가할 것을 보완 요청했다. 같은달 23일 한수원 측의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추가 보완요청이나 주민공람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위원장은 "초안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내용인만큼 주민들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연장까지 남아 있는 절차가 많다는 점에서 폐로의 결단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전라남도 JeollaNamd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종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종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1.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2.易地思之(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3.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4. 나의 부족한 요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동부 걸스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